

기 자 간 담 회
배 포 용

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현황

2005. 5. 26

재 정 경 제 부
(경제자유구역기획단)

목 차

I. 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과 현 위치	/ 1
II. 그간의 추진실적 평가	/ 2
III. 주요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	/ 5
1. 송도 국제도시 건설	
2. 청라지구 개발	
3. 인천공항 제2연륙교 건설	
4. 공항·항만 배후지 물류기업 유치	
5. 여수 화양 관광단지 개발	
6. 선진 학교·병원 유치	
7. 국가 물류체계 개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	

< 참고 > 경제자유구역관련 주요 이슈 검토

I.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전략과 현 위치

개발구도·제도마련 단계

개발·외자유치 구도 확정 ('03~'04)



- 경제자유구역 지정, Master plan 확정
- 제도운영의 틀 마련
 - 자유구역 지정 및 구역청 개청, 예산체계 확정
 - 국가물류체계 개선 등 각종 제도개선·지원책 마련
 - 관계법령 제·개정 등을 통해 초기운영 미비점 보완
- 개발구도 확정, 외자유치 기반 마련
 - 지역별 landmark가 될 기업들과의 MOU 체결
 -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IR 활동

개발 단계

외자유치 및 1단계 개발 완료 ('05~'08)



- IT, BT, 물류 등 우수 다국적기업 유치
- 국제업무지구, 주거단지, 관광단지 등 완공
- 외국 학교·병원의 개설

운영 단계

자체적 도시기능 수행 ('09 이후)

- 첨단단지, 주거시설, 국제업무단지, 학교, 병원, 레저시설 등이 복합된 최첨단 국제도시로 발전

◇ 경제자유구역의 현 위치 ◇

◇ 금년 이후 1~2년이 중요한 시점

- 작년까지 개발구도를 확정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금년부터는 본격적 개발에 들어가는 단계로 외자유치에 있어서도 가시적 성과 달성 필요

II.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 평가 : 개발외자유치 구도를 확정하고
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

(1)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전제가 될 제도적 틀 마련

□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(04.12)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근거가 될 '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' 제정(05.5)

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

② 내국인의 외국학교 입학 허용(입학비율은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)

③ 국제적 경관을 갖춘 도시를 위한 규제개혁

- 경제자유구역내 용적률, 건폐율을 1.5배 허용하여 국제도시에 부합하는 sky line 확보
- 골프장내 주택건축 허용으로 서구식 쾌적한 주택공급 가능
-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

④ 구역청의 one-stop 서비스 기관화 강화

- 구역청장에 계약직·기능직 임용권, 일반직 전보권 허용
- 구역청에서 one-stop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초지자체와 업무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개선
- 각 구역청별 기본운영규정 제정 추진 : 구역청장에 근무성적평정권 등 부여로 조직통솔력 강화

□ 기반시설에 국고지원 확대

	04년	05년
· 총계 (억원)	13,213	18,812 (42.4% 증액)
(재정부 소관)	239	1,150

□ 국가물류체계 개선

- 05.4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04.3 기 마련된 '국가물류체계개선 대책' 추진실적 종합점검

* 주요 내용 : 국가수송망을 철도, 연안해운 등 대량수송체제로 전환, 물류 전문기업 육성, 물류정보화

-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116개 과제 중 106개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중이며, 나머지 과제도 추진 가속화하기로 함

□ PM 제도의 정착

- 성과목표 달성과 주요 프로젝트 책임담당제 추진을 위해 종래 2국 6과 1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조직을 2국 6팀 체제로 개편(05.3)

- 각 구역청에서도 주요 외자유치 프로젝트별로 PM 운영

* Gale社 송도개발, 송도 셀트리온社, Pyne社 송도신항만 투자 등

(2) 우수 기업 유치 추진 : 총 189억불 이상 MOU 체결

* 다만 MOU 체결부터 실제 투자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
(Gale社는 01년말 MOU를 체결했으나 실제 착공은 금년 3월 이루어짐)

- 아직 본격적 개발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그간 Developer 및 지역별 Landmark가 될 Anchor 기업과 MOU 체결에 주력

예) 美 Gale : 송도국제도시 조성

英 AMEC : 제2연륙교,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 개발

셀트리온(美 VaxGen 투자) : 송도 바이오단지의 Anchor 기업

르노-삼성 : 부산·진해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의 Anchor 기업

- 재정부, 구역청, 토지공사 등 관련기관 합동 IR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해외인지도 제고

* 05.3 칸느 부동산박람회 공동참가 및 AMCHAM 회원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등

< 참고 >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추진 현황

	투자자	업종	투자금액	주요 내용
인천	Gale社 (미국)	개발사업시행자	US\$ 127억불	- '02.2 투자계약체결 - 송도 167만평 국제업무지구 조성 - 컨벤션센터 착공('05.3)
	VaxGen社 (미국)	Bio Technology	US\$ 1.5억불	- '02.2 투자계약체결 - 송도 28천평 규모 항암제 등 생산시설 건설 중
	AMEC社 (영국)	Engineering, 개발사업시행자	제2연륙교 12억불 인천공항 IBC-II 20억불	- 제2연육교 건설사업 ('09 완공예정) - 인천공항 북측 국제업무지구 (IBC-II) 개발('04.4 MOU)
	Pyne社 (미국)	항만시설 등	US\$ 15억불	- '04.4 MOU체결 - 송도신항 건설 - 1단계 2008년 완공
	DHL(미국) TNI(네덜란드)	특송업체	DHL 2,000만불 TNT 700만 유로	- 인천공항내 화물터미널 건설 (DHL 6,800평, TNT 2,100평)
	GM-대우	자동차	0.56억불	- 청라지구 성능시험 및 R&D
	UN ESCAP	연구개발	미정	- ITC 개발센터 송도 입주 결정 (국내 최초 UN 산하기관)
부산 진해	Dubai port Int'l (UAE)	항만시설	US\$ 3.1억불	- 부산신항 1단계 개발 투자
	Snow-Box (영국)	관광·레저단지	US\$ 2.5억불	- '04.12 MOU 체결
	르노-삼성 (프랑스)	자동차	US\$ 6억불	- 부산 신호산단내 엔진공장 증설 투자
광양	허치슨社 (홍콩)	항만시설	US\$ 1억불	- '02.상반기 MOU 체결 - 광양항 항만운영 투자
	Drager社 (독일)	의료기 생산	미정	- '04.6 MOU 체결 - 의료기 제조 R&D센터 건립
	셈콕 (싱가폴)	물류	미정	- 광양항 배후부지 3만평에 물류부지 조성
	미쓰이 물산 (일본)	물류	미정	- 04.10 광양항에 물류센터 건립 MOU 체결

Ⅲ. 경제자유구역 주요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

◇ 인천은 2008년, 부산·진해 및 광양만권은 2006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금년부터 본격적 개발사업 추진

1. 인천 송도국제도시 건설

① 국제업무지구 사업

- 사업시행자 : NSC社 (美 Gale社 70%, POSCO건설 30%)
- 총 167만평 면적에 2015년까지 127억불 투자 예정
(금년 중 20~30억불 규모 사업 착공 계획)
- 주요 추진 사업
 - (i) 컨벤션센터(1.7만평) : 1.25억불 규모, 금년 3.7일 기 착공
 - (ii) 주상복합건물 : 8.8억불 규모, 금년 5월 2,200세대 우선 분양
 - (iii) 오피스빌딩 : 2015년까지 총 60여동 조성
 - (iv) Asia trade tower(65층) : 5억불 규모로 금년말~내년초 착공 예정
 - (v) 상업시설 : 쇼핑몰 등 총 5억불 규모 금년 착공 예정
 - (vii) 기타 : 중앙공원, 골프코스, 학교·병원 등(금년말~내년 착공)

※ 컨벤션센터(1.25억불), 중앙공원(2억불)은 인천시에 기부채납 예정

- 동 지역에 입주할 해외 우수기업, R&D 센터, 유통시설 등에 대한 투자유치가 현재 진행 중

② IT·BT 클러스터 조성

- 지식산업단지 80만평 금년말 완공 예정, 벤처빌딩(21층), 본부동, 35개 벤처기업 연구소 입주 및 건축 중
 - * 우리나라 최초의 UN 산하기구인 UN ESCAP ICT(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) 개발센터 입주 확정
- 25만평 부지에 세계적 RFID(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* 클러스터 조성 추진 (2006~2010)
 - * 각종 물품에 소형칩을 부착해 사물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·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
- 10.9만평의 BT 부지 조성, 6.2만평 분양 완료
 - * (주) 셀트리온 : 2.8만평 부지에 1.5억불을 투자, 공장 및 연구센터 완공
 - 입주 국내외 BT 기업들의 공동연구, 실험, 마케팅 등 지원을 위해 2008년까지 1,500억원을 들여 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건립 계획

2 청라지구 개발

□ 사업 개요

- 사업시행자 : 한국토지공사
- 사업 규모 : 541만평, 계획인구 9만명, 조성사업비 3.7조원
- 사업 기간 : 2008.12 까지
- 주요 사업 : 테마파크·관광·레저·스포츠, 상업시설, 주거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실시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금년 11월 착공
 - 우수 테마파크 등 유치방안 강구
 - 10월 세계화상대회를 계기로 중국, 동남아 등 화교자본 유치 추진

3. 인천공항 제2연륙교 건설

□ 사업 개요

- 사업시행자 : KODA개발(現자본금 200억원: AMEC 51%, 인천시 49%)
- 사업 규모 : 16,408억원
- 사업 기간 : '05.6월 ~ '09.10월(준공) * 운영기간 30년
- 주요 사업내용 : 12,343m(교량: 11,908m, 土工: 435m), 왕복 6차로

□ 제2연륙교 건설의 의미

- 인천공항에서 송도를 15분에 연결 : 송도의 국제도시로 발전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공에 필수 인프라
- 인천공항 → 송도 → 수도권 남부 → 충청·호남·영동 등 전국으로 연결되는 인프라의 대동맥
- 대표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민자사업 (금년 중 5,000억원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)

4. 공항항만 배후지 물류기업 유치

① 인천공항

- 배후물류단지 : 전체 60만평중 30만평 조성 완료('04말)
 - * 12개기업과 입주협약체결 (Schenker(獨), KWE(日) 범한 조양 하나로 등, 분양률 42%), '06년초 본격운영
- 화물터미널지역 : 전체 33만평중 20만평 조성 완료('04말)
 - (조성중인 13만평) 4대 특송업체(DHL, TNT, UPS, FedEx) 등 외항사 화물터미널로 활용 추진

② 부산신항 · 광양항

- 터미널(선석), 배후물류단지 확충
 - 부산 : '05년말 3선석 조기개장 06년까지 총 6선석 운영, 북측 물류단지 93만평중 '06년말 22만평완공 예정
 - 광양 : 12선석 운영중이며 06년 4선석 추가 개장 물류단지 전체 112만평중 '06년말 10만평완공 예정
- 노무공급체계 개선을 계기로 부산신항(05말 3선석 개장)의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
- 광양항은 낮은 물동량, 배후 인프라 문제 개선
 - (물동량) 국토서부축 화주에 대한 집중홍보(광양청), 포워드 인센티브 확대 등
 - (간선 교통망) 전라선, 경전선, 광양-전주간 도로 등 적기완공
 - * 전라선, 경전선 복선화 사업은 일부 구간을 BTL 방식으로 전환해 적기 완공 추진, 전주~광양간 고속도로는 ABS를 발행해 2010년까지 전구간 동시 개통

5. 여수 화양 관광단지 개발

□ 사업 개요

- (주)일상이 사업시행자로 2015년까지 299만평 부지에 1.5조원을 투자 골프장, 호텔, 식물원 등 관광단지 조성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여수박람회 유치와 연계해 관광·레저 허브화 추진 (조기착공 방안 강구)

6. 선진 병원·학교 유치

□ 학교 유치 관련

- 인천 송도 Gale社 부지에 미 동부 사립학교 수준 국제학교 설립 추진 (Harvard Advisory Group 용역, 학생 2,100명, 1.2억불 투자)
- Cluster 형성, 교육Hub 발전가능성 등 감안 특성화 대학(원) 유치
- 예) 광양만권 세계 우수 STC-R 물류대학(네덜란드) 유치 추진

□ 병원 유치 관련

- 美 동부 우수 대학병원들을 대상으로 유치작업 가속화 (세계 일류병원 08년 개원 목표)

□ 외국 학교·병원의 성공적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가속화

- 외국교육기관특별법시행령 제정
- 외국병원 설립기준, 외국 의사 면허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

7.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

□ 주요 도로, 철도의 구축

- 부산신항, 광양항 배후수송망 확충
- 인천공항철도 2단계 사업(서울역~인천공항) 09년 완공 목표

□ 종합물류업 육성

- 화물 운송, 보관 하역 등 종합서비스 제공 가능 기업을 종합물류기업 인증
- 세제지원, 통관업 허용 등 정부지원은 하반기 중 관련법률 개정 추진

□ 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

- SCM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 1~2개 대학(원)에 5년간 지원
- 해운항만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운, 항만 특화대학에 5년간 지원
-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물류대학을 유치 아시아 물류인력 공급기지화

□ 물류분야 각종 규제완화

- 항만공사 설립, 화물신고 일괄처리, 인천공항 비용인상 예측가능성 부여 등

< 참고 > 경제자유구역 관련 주요 이슈 검토

①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개발에 치중한다는 지적

- 외국기업과 MOU 체결이 본계약으로 연결되어 실제 투자로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
 - 상해 푸둥 등 중국 특구의 경우에도 특구지정 후 실제 활성화까지 장기간이 소요 (푸둥의 경우 90년 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93~94년부터, 입주는 96년 이후 본격화)
- 현재 개발 추진중인 송도국제도시 사업은 주택, 학교, 병원 등 최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세계유수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(시간소요)
 - 2020년까지 국제업무지구, IT·BT 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거시설·학교·병원 등이 단계적으로 개발될 예정 (1단계 : 08년 완공 예정)
- * 개발사업자인 NSC社는 현재 분양중인 주거시설(아파트 등) 외에도, 국제업무지구내 65층규모의 아시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한 4개 오피스빌딩을 05년말~06년초 착공할 예정(5.18 발표)

② 아직도 규제가 많고 One-stop 서비스가 부진하다는 지적

-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**법령개정** 등을 통해 **필요한 규제완화**를 추진해 왔음
 - *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, 외국학교 내국인 입학, 용적률·건폐율 1.5배 허용, 골프장내 주택건설 허용, 외국인에 주택 특별공급 등
- 향후에도 **외투기업 애로사항** 등을 청취, 필요한 규제완화 사항을 **적극 발굴해 제도개선**에 반영해 나갈 계획
 - * AMCHAM, EUCCCK, Japan club과 정례협의회 개최
- 경제자유구역청의 **자율성·독립성·전문성**을 제고하고 **One-stop 서비스 기관화**를 위해 (i) 시군구와 업무범위를 조정해 **개발 외자유치 관련 업무를 구역청에서 일괄처리**하도록 했고 (ii) 청장 인사권 강화 등 제도개선 (04.12 경제자유구역법 개정, 05.4 시행령 개정)
 - 향후 구역청의 명실상부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**PM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one-man 서비스**를 시행, 인허가권 소관에 관계없이 실질적 One-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
- 해외 사례 (싱가폴 EDB, 아일랜드 IDA 등)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강구

③ 외국인투자 세금지원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낮으며
첨단제조업에 한정된다는 지적

○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조·물류·관광업
뿐만 아니라 고도기술수반산업*, 산업지원서비스업**까지
법인세, 소득세, 취득·등록세 등 감면 혜택 부여

* 전자·정보·컴퓨터부품 제조 등 IT산업, 제약·의료·생물공학제품 생산 등 BT
산업, 신소재·대체에너지 설비 등 新산업 전반을 포괄

** 시스템 관리운영 및 기술자문, 신물질·의료·생물학 관련 기술, 문화·디지털
컨텐츠 관련 기술, 연구개발업 등 산업지원기능 일반

○ 국가별 특성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,
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홍콩, 싱가포르, 중국과 단순 비교는
불합리

*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(Head-quarters Regime), 조정센터
(Co-ordination Center Regime)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허용은 「OECD 유해조세경쟁
지침」 등도 함께 검토 필요

④ 수도권규제 등으로 국내기업 입주가 제한되며, 국내기업
입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다는 지적

-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개방도시 조성을
목표로 하는 곳으로 제도 자체가 국내기업을 지원하는
취지는 아님
 - 수도권 국내기업 입주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는 국가
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
- 현재 국내기업 입주를 가로막는 수도권규제도 거의 없음 (인천 FEZ)
 - 개발 진행중인 송도 국제도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
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하여 과밀부담금·공장총량제·대도시
권역내에서의 취등록세 중과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
 - 국내대기업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해 수도권내
설립이 제한되나,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 주로 국제업무,
상업시설, IT·BT·R&D센터 등으로 계획되어 대기업 공장
입주가 계획되어 있지 않음

⑤ 부산·진해지역 외투기업 공급가능 용지가 부족하다는 지적

- '05년 말 현재 신호, 지사산단 이외에 '09 화전지구 완공까지 산업용지 추가공급 계획이 없어 조기에 부지조성 및 공급 필요
- 추가로 조기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
 - 명동지구(임야 27만평)를 산업용지로 조기개발하고 개발 시기조정을 통해 화전·남양 지구 및 명지·두동·마천 지구의 조기 개발을 추진
- 명지지구 쓰레기매립장(27만평) 발견에 따른 산업용지 축소 문제는 아파트형공장공급 등을 통해 해결 추진(명지지구 쓰레기매립지(27만평) 처리문제는 향후 정확한 처리비용 등을 산출후 부산시와 토지공사간 협의 추진토록 지원)

⑥ 송도 DEC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지적

- 인천청과 기존 컨소시엄(MS, HP, 영우엔어소시에이트 등 국내외 6개사)간의 MOU가 기간만료(6개월)된 것이지, DEC(디지털 게임영상 단지) 프로젝트가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님
- 향후 송도 DEC에 MS, HP, SUN 등 우수 IT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